

(2) SK텔레콤의 通信端末機 製造業 進出

- (단말기 시장 현황) 이동전화, PCS 등 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 증에 힘입어 단말기 시장 규모는 연내에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진출)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미국 쿠컴社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제조업 진출을 공식화함
- (파급 효과) 직접적으로는 SK텔레콤에 의해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이 독점화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통신 사업자의 연쇄적인 단말기 사업 진출을 유발하여 통신 서비스 업체가 단말기 시장까지 지배하는 구도를 형성할 것임

**연내에 3조원대의
통신 단말기 시장
형성 전망**

- 무선 통신의 대중화에 따른 단말기 시장의 급팽창
 - (무선 통신 시장의 급성장)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가 약 500만명에 이르고 있고, 10월부터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무선 통신 이용자는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임
 - (단말기 시장의 현황) 통신 단말기 시장의 두 축은 이동전화 단말기와 PCS 단말기임. 통신 서비스 시장의 급팽창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1조 2천억원대를 돌파한 단말기의 시장 규모는 연말까지 약 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 통신 단말기는 PC 모니터를 뛰잇는 가장 유망한 정보통신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대표적인 단말기 제조 업체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맥슨전자 등 국내 4개사와 쿠컴, 모토롤라 등 외국 2개사 정도이고, 대부분 이동전화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업체는 PCS용 단말기도 생산, 공급할 예정임

<표> 업체별 이동전화 단말기 매출액 추이

	1996년 상반기	1997년 상반기	증가율
삼성전자	2,200억 원	6,500억 원	227.3%
LG정보통신	500억 원	2,100억 원	340.0%
현대전자		800억 원	
맥슨전자		700억 원	

통신 서비스 업체
인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진출

단말기의 안정적
조달, 통신 사업
자의 지배적 지위
고수, 핵심기술
확보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의 독점화 가
능성 존재

다른 서비스 업체
의 연쇄 진출 유
도, 단말기 전문
제조업체의 사업
환경 악화

○ SK텔레콤의 통신 단말기 제조업 진출

- (경과)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8월, 미국의 퀄컴社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의 자체 생산 계획을 공식화함
 -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단말기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 (단말기 사업 진출의 배경)
 - 고객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단말기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는 조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통신 서비스와 기기 사업을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통신 사업자로서의 지배적 지위를 고수하고자 함
 - 단말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차별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는 기술적 요인이 작용함

○ 파급 효과

- (단기)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은 독점화되고, PCS 단말기 시장은 과당 경쟁하는 형태로 양대 단말기 시장간 불균형이 존재할 것임.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의 약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말기 제조 업체들은 실질 거래선이 대폭 축소된 이동전화 분야보다는 PCS용 단말기 생산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임
- (장기) SK텔레콤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다른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잇따라 단말기의 자체 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업체가 단말기 시장까지 지배하게 되어, 단말기 전문 제조업체의 사업 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것임
 - 실제로 이동전화 사업자인 신세기통신 뿐만 아니라 PCS사업자인 한솔PCS도 단말기 자체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LG텔레콤은 LG정보통신을 단말기 공급처로 활용할 수 있음

(강 용 중)